

국가·민족·종족의 정치: 코트디부아르 정치위기의 사례

조 홍 식 |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코트디부아르는 2011년 3월 현재 장기적인 정치 위기의 늪에 빠져 있다. 2002년의 민중 봉기에 이어 국도가 분할되어 내전 상황에 놓여 있으며, 1995년과 2000년의 대통령 선거는 모두 정상적인 조건에서 치러졌다고 보기 어렵다. 1999년에는 군부 쿠데타가 정권의 종말을 가져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코트디부아르가 지난 10여 년 동안 경험한 정치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역할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기존의 탈역사적 부족주의나 일반적 국가실패론, 정치경제적 설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치 세력이 구조적 원인을 정치 자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특히 30여 년의 안정적 독재에서 다원주의 정치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민족 정체성 조작의 정치를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규명하였다. 그 다음에는 주요 정치 지도자의 선택이 위기의 발생과 전개에서 수행한 역할을 조망하였다. 일상에서도 행위자의 역할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지만 위기의 역학에서 행위자의 선택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트디부아르 정치 위기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논문이 아닌 저서 분량의 연구가 필요할 테지만 이 논문의 역할은 구조적 설명에 치우친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위기의 역학을 위기의 정치사회학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만족한다.

주제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국가, 민족, 종족, 정체성, 정치위기

I. 아프리카의 국가, 민족, 종족

2011년 3월 현재 코트디부아르에는 두 명의 대통령이 각각 정부를 이끌며 대립한다.¹ 지난 해 10월 31일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로랑 그바그보(Laurent Gbagbo, 38%)와 알라산 우아타라(Alassane Ouattara, 32%) 후보가 11월 28일 결선투표에서 대결하였으나, 서로 다른 기관의 결과를 토대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였다. 독립선거위원회(Commission électorale indépendante)는 우아타라가 54.1%를 득표하여 45.9% 득표에 그친 그바그보를 눌렀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불복한 그바그보 현직 대통령은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로 하여금 자신이 51.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발표하게 하였다.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이나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등 국제사회는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된 독립선거위원회의 결과를 신뢰하여 우아타라의 승리를 인정하였지만, 2000년 이후 대통령으로서 국가 기구를 장악해 온 그바그보는 정권 이양을 거부하며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1). 이들은 각각 총리를 임명하였고 코트디부아르의 최대 도시 아비장에 거주하면서 국지적 무력 충돌로 맞서고 있다.

물론 2010년 대통령 선거로 국제무대에 부각된 코트디부아르 정치위기의 시작은 적어도 1999년 12월 게이(Robert Guéï) 장군의 쿠데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게이 장군은 당시 베디에(Henri Konan Bédié)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군부 통치 아래 준비과정을 거쳐 2000년 10월 22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선거의 승자라고 주장했지만 10월 25일 아비장에

1. 이 논문의 초고가 완성된 시점 이후에 코트디부아르 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2011년 3월 28일 우아타라를 지지하는 군사 세력은 그바그보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하였고, 유엔 안보리는 3월 30일 1775호 결정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군에 “시민에 대한 중무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Rémy, 2011a). 이에 유엔 주도하의 프랑스 군대와 주변 아프리카 국가에서 파견한 군대는 그바그보 세력에 대한 우아타라 세력의 공격에 동참하였고, 그바그보가 4월 11일 체포됨으로써 대선 이후 양대 세력의 대립은 일단락되었다(Rémy, 2011b).

서 대규모 항거와 군경 일부가 시위대에 합세하면서 군부 통치는 종결되었고 선거의 실제 승자인 그바그보가 신임 대통령으로 등장하였다.² 그 후 2000년대 코트디부아르는 그바그보가 통치하는 남부와 우아타라 지지세력이 지배하는 북부로 양분되어 대립하였고 여러 차례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원래 2005년 예정되었던 대통령 선거는 지속적으로 연기되었고 2010년이 돼서야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지난 10여 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정치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정치역학을 설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불안은 설명하는 전통적 이론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는 설명으로 종족의 정치(ethnic politics)를 통한 분열과 대립을 강조하거나 심지어 현대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족주의(tribalism)를 통한 정치 불안의 설명이다.³ 이들 설명에 의하면 아프리카인은 혈연을 중시하는 부족이나 종족에 대한 충성심을 최우선하며 이러한 소속감과 결속력이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집단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치적 요인을 내세우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외부로부터 도입된 국가 특히 민족국가가 형성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우에 따라 첫 번째 종족 또는 부족정치와 연결되어 국가의 실패를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이와 별개로 국가 자체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또는 지속 가능한 국가 형성에 실패했다는 것이다.⁴ 셋째, 불평

2. 1999년의 쿠데타로부터 2000년의 대선과 그 결과 발생한 코트디부아르의 양분에 대해서는 르파프(Le Pape, 2003)의 논문을 참고할 것. 국내 연구로는 아프리카의 민주화 과정과 종족 정치 부상의 상호 관계를 코트디부아르 사례를 통해 조명한 한양환(2007)을 참고할 것.

3. 이 논문에서는 ‘종족’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문화 공동체로서 공통의 명칭과 조상에 대한 신화, 공동의 경험에 기초한 역사와 특수한 문화, 특정 영토와의 관계와 연대의식으로 정의된다고 설명하는 스미스(Smith, 1986: 22-31)의 분석을 활용한다. 다른 한편 ‘국가’와 관련해서는 주어진 영토에 대한 정당한 폭력을 독점하는 기구라는 막스 베버의 정의를 바탕으로 영토에 기초한 정치조직으로서 시민에 대한 통치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시민권을 규정하는 기구로 본다. ‘민족’이란 국가와 종족을 연결하는 매개 개념으로서 전자와 같이 영토성과 시민권을 중요시하는 경향과 사회문화적 연대를 강조하는 경향 사이에서 오가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부족주의(tribalism)나 씨족주의(clanism)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의미보다는 더 직접적인 혈연 공동체의 의미가 더 강하다.

등한 경제 구조에 기초한 정치 불안의 설명이다. 아프리카는 전형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계에서 주변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가의 경제 기반을 형성하기가 어렵고 자연스럽게 정치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⁵ 20세기 후반 특히 신자유주의 변화는 아프리카와 같은 주변부의 착취와 빈곤화를 강화하였고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효과가 불안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⁶

이상의 세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는 아프리카 정치 불안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불만족스럽다. 종족 정치나 부족주의를 통한 문화적 설명은 환원론적이다. 부족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렵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종족의 정치는 아프리카 내부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국가별, 시기별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면 문화적인 요인을 들어 설명하지만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유지되는 안정적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무엇보다 전통과 구조를 통한 문화적 설명은 ‘영구불멸의 아프리카의 후진성’이라는 시각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오리엔탈리즘이나 탈역사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⁷ 많은 연구가 보여주듯이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혈연에 기초한 전

-
4. 예를 들어 국가사회학에서 비른봄과 바디는 “아프리카의 국가는 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수입품이며 그들과는 가장 대립적인 유럽의 정치사회 체계의 불완전한 모조품이며, 매우 거대하고 비효율적이며 폭력의 근원으로 작동하는 외부적 요소”라고 분석하였다(Birnbaum et Badie, 1979: 181). 최근에 학계에서 논의되는 베이츠(Bates, 2008), Herbst(2000), 로트버그(Rotberg, 2003), 시스(Thies, 2009) 등에 관한 논의는 디존(Di John, 2009)의 논문을 참고할 것.
 5. 예를 들어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분석에서 아민(Amin, 1967: 279-80)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코트디부아르 사회는 자신만의 자율성을 보유하지 못한다. 그 사회는 자신을 지배하는 유럽 사회를 제외하고 이해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는 코트디부아르인이 구성하지만 진정한 부르주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은 사실 자본과 간부를 제공하는 유럽에 자리하고 있다.”
 6. 코트디부아르 사례에 직접 적용되는 연구는 아니지만 아프리카에서 종족분규에 관한 일반적 논의 및 후투-투치분규 사례연구에서 한양환(1999)은 근대화, 심리적 우월감, 계급갈등, 세계화 등 주로 경제 구조적 요인에 기초한 종족분규론을 제시한 바 있다.
 7. 헤겔은 이미 아프리카와 관련하여 전형적인 유럽인의 문화중심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에 의하면 아프리카는 “그 자체의 역사라는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무의미하다. 아프리카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를 통해 아직 문명권에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즉 야만과 자연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Bayart, 1989: 21)에서 재인용.

통적 혈족이나 부족이 존재했지만 이들이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 정치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보다 규모가 큰 종족 공동체의 개념은 사실 전통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유럽, 아랍 등 외부세력과의 교류과정에서 만들어진 매우 근대적인 개념이자 실체이다(Hastings, 1997: 148-166). 특히 식민 지배 시기의 식민 행정이 근대 국가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사회를 규정하고 계산하고 동원하는 과정에서 종족 유형과 그에 따른 인구의 구분이 이뤄졌다(Vail, 1989). 달리 말해서 아프리카 대다수 사회에서 종족의 정치는 분명 존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것은 역사를 뛰어넘는 아프리카의 문화적 특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정치적 과정의 결과이며, 그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뜻이다.⁸

서구식 국가 이식의 실패는 정치적 요인을 보다 강조하는 설명이다(Badie, 2003). 종족 정치를 통한 설명의 연장선에서 원래 아프리카의 정치 공동체는 종족의 형태를 통해 인간에 대한 지배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식으로 영토에 기초한 정치 공동체의 형성이 어렵다고 말한다. 다양한 종족을 하나의 국가라는 틀 속에 인위적으로 포괄시킴으로써 구조적으로 불안한 요인을 형성하게 했다는 시각이다. 서구에서 국가라는 영토 기반의 통치 및 행정 기구와 그에 해당하는 민족이라는 사회적 결속 기제가 상호 강화 작용을 한다면 아프리카에서는 국가의 물질적 기반도 취약한 상황에서 민족이라는 사회적 기제의 형성도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19세기 또는 20세기 동시대에 서유럽과 아프리카를 비교하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서유럽 자체의 민족국가 형성의 장기적 역사를 감안한다면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민족국가 형성이 어렵다는 현대 아프리카에서조차 국경의 변화나 기존 국가의 분단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은 국가체제의 공고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Zacher, 2001). 부연하자면 수 세기에 걸쳐 형성된 다음, 대외적 지배로까지 강화된 서구의 국가와 신생 독립국의 국가를 단순 비교하

8. 헤이스팅스(Hastings, 1997: 149)는 아프리카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대부분의 비문자 문명권에서 그렇듯이 종족성이 매우 유연한 정체성이었으며 이민이나 전쟁, 정부과 영토상 가까운 집단과의 언어적 관습적 교류를 통해 쉽고 빨리 변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오히려 아프리카의 경우 국가의 유지 및 생존 자체를 서구 민족국가 형성의 초기단계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인다.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을 주로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 역시 불만족스럽다. 서구의 아프리카 지배 기간 동안 많은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포기하고 상업용 농작물의 재배를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식민 시기 강제 노동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착취와 사회적 억압이 아프리카 사회를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해방 후 다양한 외부 세력이 경제적 포탈을 위해 아프리카 사회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심할 경우 군사 파견을 통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경제주의적 설명이 정치 불안을 설명하는데 명백한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경제적 착취의 정도나 자원의 부존 여부, 산업 발전의 정도 또는 대외 의존성 등은 그 자체로 정치 불안의 결정적인 설명 요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화적 종족의 정치, 정치적 근대국가의 취약성, 경제적 주변부의 종속성의 설명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감안하되 다음과 같은 설명 요인을 강조하여 코트디부아르 정치 위기를 설명하려 한다. 우선 정치적 요인과 과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기초 아래 위기의 설명을 시도한다. 문화, 정치구조, 정치경제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치과정에서 작동하는 역할을 조명해야 위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접근법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아프리카 종족의 정치가 가지는 중요성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종족성이 정치경쟁에서 유연한 자원으로 기능하며, 정치 행위자의 전략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끝으로 정치위기의 시기에는 기존 구조적 요인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며 따라서 위기의 역학(Dobry, 1986)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1993년 우푸에 부아니 대통령의 사망과 포스트 우푸에 부아니 시기는 구조적 설명보다는 유동적 위기 역학이 보다 적절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현재 코트디부아르 정치위기의 시작은 사실 1999년의 쿠데타로 볼 수도 있지만 1993년 30여 년간 독립 코트디부아르를 통치한 우푸에 부아니(Félix Houphouët-Boigny, 1905~1993년) 대통령의 사망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

하면 1960년 독립부터 1993년 우푸에 부아니의 사망까지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표적인 정치 안정 및 경제 발전의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대한 이해는 이후 코트디부아르의 정치 위기를 이해하는데 기본과 대조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다음 장의 대상이다. 다음은 정치위기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틀을 형성한 이부아리떼(Ivoirité)에 기초한 민족 정체성의 정치를 분석한다. 1990년대 우푸에 부아니를 이어 대통령에 부임한 베디에의 정책은 종족성에 기초한 민족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 코트디부아르를 위기로 몰고 갔다. 이 같은 민족 정체성의 정치가 내전적 상황으로까지 발전한 원인은 주요 정치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위기의 정치 역할 분석은 주요 정치 지도자의 입장과 역할에 주목한다.

II. 우푸에 부아니 시기의 균형

코트디부아르의 사례는 서론에서 지적한 구조적 설명의 한계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왜냐하면 독립부터 30여 년의 기간과 그 이후 20여 년의 기간이 확실하게 대조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960~93년의 기간 동안 코트디부아르는 우푸에 부아니(Houphouët-Boigny) 대통령과 단일정당의 가부장적 체제 아래 카카오와 커피의 수출에 기초한 고속 경제 성장의 모델이었다. 그러나 1993~2011년의 시기는 종족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영토가 분할되어 내전적 대립으로 발전하는 아프리카 정치 불안의 대명사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지를 포착하는 작업은 구조적 설명과 사건 중심의 설명을 연결함으로써 위기의 사회과학적 이해를 도모하는 기본 작업이다. 여기서는 우푸에 부아니 시기에 형성된 독립 코트디부아르의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한다.

우푸에 부아니는 1960년 코트디부아르 독립과 함께 대통령에 취임하여 사망하는 1993년까지 통치했지만, 이미 식민 시기부터 코트디부아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부상하였다.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본

다면 식민시기와 우푸에 부아니 통치 시기의 연속성이 그 이후의 단절보다 더 돋보인다. 우푸에 부아니는 1939년부터 지역정치에 촌장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뒤 카카오 및 커피 농장주를 대표하는 사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고 1945년 프랑스 하원 국민의회 의원으로 코트디부아르 지역에서 당선되었다.⁹ 그는 프랑스 제4공화국 아래서 여러 차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이미 1959년 코트디부아르 행정 수반으로 취임하였고 1960년 코트디부아르가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코트디부아르민주당(PDCI, Parti Démocratique de la Côte d'Ivoire)을 유일 정당으로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확고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트디부아르의 국가 정체성 역시 식민시기에서 비롯되었다. 1880년대 유럽 세력의 아프리카 점령 및 분할이 치열하던 시기 프랑스는 현재의 코트디부아르 지역을 통제하면서 동부의 영국령 골드 코스트(Gold Coast) 및 서부의 영어권 독립국 라이베리아(Liberia)와 구분함으로써 정치 및 군사적 단위를 형성하였다. 다만 북부와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았고 특히 1904년에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령 서부 아프리카(AOF, Afrique Occidentale Française)라는 식민행정단위에 포함되었다. 프랑스령 서부 아프리카의 수도는 현재 세네갈의 생루이(Saint Louis)에 위치하고 있었고, 우푸에 부아니도 그곳에 위치한 윌리엄 폰티(William Ponty) 사범학교 및 의대에서 수학했다. 식민 시기부터 세네갈이 서부 아프리카의 식민행정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면 코트디부아르는 카카오와 커피의 주요 생산지역으로 경제적 성장의 중심지였다.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AEF, Afrique Equatoriale Française)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령 서부 아프리카는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세네갈을 중심으로 교육 기능이 더욱 발달해 있었고 이를 통해 상당수의 엘리트 형성

9. 우푸에 부아니는 바울레 종족에 속하며 코트디부아르에서 바울레의 주도적인 역할은 코코아와 커피 재배를 통한 경제적 부를 축적한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물론 이러한 정치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우푸에 부아니가 식민체제에서 대표성을 확보한 뒤 신생 국가의 핵심을 이루는 순수 정치적 과정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J.-P. Chauvaud et J.-P. Dozon, 1987: 269). 바야르(Bayart, 1989: 243)는 코트디부아르 국가 형성에서 바울레의 역할을 독일 형성에서 프러시아의 역할이나 이탈리아 통일에서 피에몽의 역할과 비교하였다.

이 가능했다(M'Bokolo, 1985: 135-136). 또한 강제 노동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적도 아프리카의 것만큼 잔혹한 성격의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서부 아프리카는 독립 이전부터 가장 활발한 정치 활동의 무대로 작동하였다. 그것은 교육을 받은 정치 엘리트가 부족했던 적도 아프리카와 대조적인 요인이었다. 세네갈의 생고르(Senghor), 기네의 투레(Touré), 코트디부아르의 우푸에 부아니 등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뛰어난 정치 엘리트로 등장하였고 아프리카의 독립과 지역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의식의 발달은 이 지역 사회의 높은 민주적 열망과 의식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60, 1970년대 코트디부아르의 우푸에 부아니 체제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는 아프리카의 모델 국가였다. 그는 대외 정책에서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프랑스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안정을 꾀했다. 그의 연설에서 드러나듯이 우푸에 부아니의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라는 커다란 가족의 범위에서 이제 홀로 걸음마를 떼려고 하는 국가에 비유할 수 있었다. 그만큼 프랑스에 대한 종속적 입장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속적 긴밀한 관계 속에서 코트디부아르의 발전을 추진하였다(Verschave, 1999). 우선 정치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프랑스와의 긴밀한 관계는 코트디부아르에 주둔하는 프랑스 군대를 통해 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푸에 부아니 독재 정권은 프랑스 군대의 비호 아래 집권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소수의 군대를 유지하면서도 주변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었다.

동시에 카카오와 커피의 주요 생산국으로 그 수출에 의존하는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와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었다. 농산물의 수출을 통해 얻은 소득은 코트디부아르에 기초적인 식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었고 그로써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산업 발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당시 동아시아의 신흥 산업국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코트디부아르는 이미 농산물 수출을 통한 고속 성장의 궤도에 올랐고 아버지는 서부 아프리카의 파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프랑스에 의존하는 지정학적 안정과 산업 농산물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

은 분명 코트디부아르 정치 안정에 기여하는 중대한 요인이었지만 여기서 제외할 수 없는 요인이 우푸에 부아니의 국내 정치적 수완이다. 그는 코트디부아르가 내포하고 있는 긴장과 대립의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였다. 우선 그는 전통적인 촌락 정치(chefferie)와 현대적인 단일 정당의 정치를 교묘하게 조절하였다. 사회주의를 내세운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 조직을 파괴하면서까지 단일 정당을 강요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고, 동시에 기존의 촌락 정치로 인해 국가 중앙 정부의 권한이 무기력화하는 현상을 초래하지도 않았다. 우푸에 부아니는 종족간의 대립과 분열을 피하기 위해 국가가 독점하는 이권의 분배에 적극적으로 나서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⁰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에서 나타나는 지대추구의 정치와 그로 인한 무력 대립의 빈번함을 감안할 때 우푸에 부아니의 조정 역할은 사후적이지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바야르(Bayart, 1989)는 아프리카의 정치를 ‘배의 정치’(la politique du ventre)라고 표현하면서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부정부패라고 보는 것이 아프리카의 상황에서는 매우 당연하고 특수한 형태의 분배의 정치라고 분석하였다.¹¹ 배의 정치란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의 정치’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 ‘나눠 먹기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푸에 부아니의 코트디부아르에서 전개된 배의 정치는 상당히 균형 잡힌 분배의 정치 양상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푸에 부아니 통치시기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1980년대에 돌입하면서 코트디부아르 모델과 우푸에 부아니 정권은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우선 경제적으로 1980년대는 개도국 위기의 시기이고 코트디부아르도 이

-
10. 분배와 종족의 정치에 관해 베이트즈(Bates, 1983: 164-165)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전개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종족 집단은 승리를 위한 일종의 한계 연합의 한 형태이며, 이익 배분의 투쟁에서 이윤을 창출할 만큼 커야하지만 동시에 이윤의 개인당 몫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충분히 작아야 한다.”
11. 바야르의 ‘배의 정치’에서 “부족주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권력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이뤄지는 통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진단하였다(Bayart, 1989: 82).

위기에서 피해 갈 수 없었다.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코트디부아르의 수출 소득은 타격을 입었으며, 이자율의 상승으로 코트디부아르는 다른 수많은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외채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코트디부아르의 경제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일인당 소득은 1980년과 비교했을 때 2000년에 절반으로 줄었고, 빈곤층은 11%에서 39%로 증가하였다(Hugon, 2003: 115). 동시에 코트디부아르의 인구는 1975년 670만 명에서 2000년 1,6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사회적으로 코트디부아르는 선진국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이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1960, 70년대 선진국에 대량 이민한 집단이 1980년대부터 사회적, 정치적으로 비판과 배제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듯이,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카카오 및 커피 등 농업 경제의 필요성으로 이민 온 내부 또는 외부 집단이 모두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주로 북부에서 남부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주변 국가에서 코트디부아르로 이민 온 집단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우푸에 부아니의 장기 독재 체제는 점차 저항과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1982년에는 경제적 위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비장의 대학가에서 우푸에 부아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당시 그바그보는 그 리더로 부상함으로써 코트디부아르 정치 지도자로 부각되었다. 또한 우푸에 부아니는 해안 지역의 최대 도시인 아비장에서 수도를 자신의 고향 야무수크로(Yamoussoukro)로 옮기는 무리수를 두었다.¹² 여러 가지 이유와 논리가 동원되었지만 아비장과 남부의 불만을 무마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처럼 우푸에 부아니 통치시기와 그 이후의 위기를 단순 대립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이미 우푸에 부아니 시기에 여러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Bouquet,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푸에 부아니 시기에 내전적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대립 또는 균열 구조가 존재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국부의 역할을 담당해 온 국가 상징이 사라진 상황에서 다당제 경쟁 정치 체제와 경제 위기 및 사회 불안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이

12. 그는 새로운 수도에 세계 최대의 성당을 건설하였고 이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헌납한다고 선언하였다.

다. 다음 장에서는 포스트 우푸에 부아니 시기의 정치를 분석한다.

III. 민족 정체성의 정치: 이부아리떼

이 연구에서는 우푸에 부아니의 사망 이후 베디에 정권이 추진한 민족 정체성의 정치가 이부아리떼(Ivoirité)라는 개념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세력과 국민의 대립 및 균열 구조를 형성하였고,¹³ 그것이 정치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이해한다. 모든 민족 정체성의 정치가 이부아리떼의 개념처럼 강력한 동원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부아리떼의 정의 자체가 폭력적 성격을 띠는 것도 아니다. 다만 베디에 정권이 규정한 이부아리떼는 국민의 상당수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폭력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대립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우선 우푸에 부아니 집권 말기에 등장한 민주화로 인한 정치 제도 및 게임의 변화와 1990년대 경제 위기 및 사회 불안의 확산을 살펴보고, 그 배경에서 등장한 이부아리떼라는 정체성의 정치를 분석한다.

아프리카의 민주화는 1989~1990년 동구의 민주화의 바톤을 이어 받아 1990년부터 제한적인 변화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상당 수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십 년의 일당 체제가 사라지고 다당제가 도입되었다(Richard, 1997). 물론 동구의 민주화를 목격한 아프리카의 민중이 시위와 항거를 통해 다당제의 도입과 민주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코트디부아르의 경

13. 이부아리떼는 코트디부아르의 민족 정체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는 베디에와 그를 지지하는 정당(PDCI)의 전략적 개념이다. 우아타라 및 그를 지지하는 북부의 세력은 이부아리떼라는 개념을 거부하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코트디부아르 민족 정체성을 추구한다. 결국 민족 정체성의 정의를 놓고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정치를 우리는 민족 정체성의 정치라고 부른다. 다른 한편 여기서 국민은 영어로 nationals 또는 citizens라고 부를 수 있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의 집합을 의미한다. 국민이란 국가의 소속원이라는 다소 수동적이면서 법적인 의미를 갖지만, 민족은 국가의 기본이 되는 적극적 의미의 집단을 의미하며 소속원 개개인을 연결하는 기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정체성보다는 민족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사회학적 접근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조홍식, 2005).

우도 예외는 아니다. 1960년 처음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등 5번이나 단독 후보로 당선된 우푸에 부아니는 1990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다수의 후보를 인정하였고 야당의 그바그보를 누르고 선출되었다. 코트디부아르 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는 경쟁적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우푸에 부아니가 82%의 득표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1c). 그만큼 그는 독립 이후 30년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부아르의 다양한 종족과 종교,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우푸에 부아니가 생존하는 동안은 다당제 하에서도 그가 국가의 상징으로 기능하였고, 그의 정당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정당과 후보자의 등장은 우푸에 부아니 사망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바그보는 남부 출신으로 아버지를 기반으로 코트디부아르인민전선(FPI, Front Populaire Ivoirien)을 이미 1980년대에 조직하였다. 그바그보는 사회주의적 노선을 내세우며 우푸에 부아니의 외세 의존적 정권과 정책, 그리고 코트디부아르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나섰다. 학생 운동의 주도적 인물로 정계에 등장한 그바그보가 다당제 시기 처음부터 남북 대립 구도로 정치를 인식하거나 조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993년 우푸에 부아니가 사망한 이후 당시 국회의장을 담당하던 베디에와 총리를 맡았던 우아타라 사이에 며칠 간 일시적인 경쟁이 전개되었으나 베디에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이어받았고 그는 우푸에 부아니의 코트디부아르민주당을 기반으로 장기 집권을 계획하였다. 이에 우아타라 및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코트디부아르민주당에서 탈당하여 새롭게 공화주의연합(RDR, Rassemblement des Républicains)을 구성하였다. 이 단계에서도 아직 남부와 북부의 대립 구도로 코트디부아르 정치가 재구성된다고 볼 만한 이유는 발견할 수 없다. 다만 30년 이상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단일 정당이 다당제로의 이행기에 분열되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1990년대는 게다가 경제적 위기가 사회적 불안으로 확산되는 시기였다.

카카오와 커피 등 수출 농산물의 국제 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이웃 가나와 같은 경쟁 세력의 수출로 인해 더욱 어려운 지경이었다. 또한 외채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었고 코트디부아르도 다른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세계은행 자체의 조사에 의하면 코트디부아르의 빈민 계층은 1985년부터 1993년의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들은 남부 특히 아비장과 같은 대도시에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다.

코트디부아르는 전형적으로 경제적 호황 시기에 국내의 인구 이동과 국외로부터 이민을 흡수한 뒤 위기를 맞아 경제 사회적 불안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재 2,000만에 달하는 코트디부아르 인구 중에서 25% 정도가 이민자라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경제 위기 이전의 코트디부아르는 주변국 노동력을 흡수하는 경제 발전의 중심이었다(Touré, 1999). 또한 국내적으로도 북부 사헬지역의 인구가 남부의 카카오 및 커피 농장 노동을 위해 대거 이동하였다. 이런 인구적 변화 속에서 경제 위기의 충격은 코트디부아르 남부 지역과 아비장에서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을 높였다.¹⁴

베디에 정권의 이부아리떼 정책은 이런 상황에서 민족 정체성의 조작과 동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이부아리떼란 코트디부아르성(性)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인에게 프랑스성(性)이 존재하고 한국인에게 한국성(性)이 존재하듯이 코트디부아르인에게는 코트디부아르성(性)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이런 정체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다. 앤더슨이 민족주의의 패러독스를 지적하면서 민족주의가 가진 정치적 세력과 그 철학적 빈곤의 대립에 주목하였듯이(Anderson, 1991: 5) 이부아리떼 역시 세련되거나 심오한 철학적 또는 사상적 기초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원래 이부아리떼라는 용

14. 갈리(Galy, 2004: 136)는 이미 1980년대부터 코트디부아르 사회의 조직이 약화되고 있었다고 진단하였다. “1980년대부터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긴장의 고조와 같은 다양한 증상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긴장은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를 잉태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외국인 공동체를 개입시키고 이들은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내전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이는 질서 속에서의 정치 이행과 경제적 재생을 예상하는 낙천적 입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어는 1940년대 코트디부아르의 프랑스 유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던 개념이었고, 1974년 집권당 PDCI 기관지 프라테르니떼 마땡(Fraternité Matin)에 실린 ‘이부아리떼와 진실성(Ivoirité et authenticité)’라는 기사에서 등장하였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사장되어 있다가 1995년 베디에 대통령을 통해 코트디부아르민주당 제10차 전당대회에서 부활한 개념이다. 베디에에 의하면 이부아리떼란 “종합적 개념으로서 코트디부아르 민족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발판이며, 이부아리떼는 코트디부아르 사회의 특수한 가치를 강조하는 정체성의 틀이자 동시에 코트디부아르를 탄생시킨 초기 종족적 구성 집단의 통합의 틀이며 공통의 운명이라는 그릇 안에 포함되는 모든 외부적 요소를 집합하는 개념이다.”(Jolivet, 2003: 23)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 ‘초기 종족적 구성 집단’이라는 표현으로 통합을 언급하지만 실제로 배제의 잠재성을 알리는 신호였다. 구체적으로 1974년 이부아리떼 개념이 처음 등장한 배경을 보더라도 1960~1972년 사이에 코트디부아르의 국적법이 출생지주의(jus soli)에서 혈통주의(jus sanguinis)로의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의 이부아리떼 개념의 부활에는 선거정치에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부아리떼의 정책은 토지와 국적의 분야에서 코트디부아르인의 제한적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이민자 집단, 또는 이민자라고 치부할 수 있는 집단을 권리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베디에 정권은 이부아리떼의 개념이 문화적인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하였지만 실제로는 우아타라라고 하는 북부 출신의 잠재적 대통령 후보를 경쟁에서 제외시키려는 전략이었다.¹⁵ 그리고 단일 정당으로 코트디부아르 정치를 주도해 온 코트디부아르민주당이 민족 정체성 정치의 동원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실제로 1995년 선거에서 베디에 정권은 우아타라의 부모가 코트디부아르 북부 국가인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인이라면서 우아타라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베디에의 무리한 정체성의 조작은 모든 정치

15. 대통령 후보의 조건을 규정하는 헌법 35조의 문제(Le Pape, 2003: 33)로 이는 1995년은 물론 2000년 선거에서도 등장하며 결국 2010년 우아타라의 입후보를 가능케 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세력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우아타라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던 RDR은 물론 그바그보의 FPI조차 1995년 대통령 선거를 보이콧하였고 결국 PDCI의 베디에가 유일 후보로 등록하여 당선되었다. 덕분에 베디에는 우푸에 부아니로부터 계승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임명직에서 자동 후임 대통령으로, 그리고 모든 야당이 보이콧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정통성이 부족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베디에는 1999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쿠데타로 군부에 권력을 내주었고, 군부는 퇴임한 게이 장군을 2000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군부 대표로 내세웠다. 정치인으로 활동한 적이 없었던 게이 장군이지만 그의 정부는 2000년 대선에서 우아타라를 역시 부르키나 파소 출신으로 규정하면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다. 결국 2000년 대선에서는 게이 장군과 그바그보 후보가 대립하였는데, 게이 장군은 자신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공포하였다. 이에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항쟁이 벌어졌고, 결국 그바그보가 선거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으로 부임하면서 일단 소요가 마무리 되었다(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1c). 하지만 우아타라의 1995년 및 2000년 선거 불참을 강요한 이부아리페의 기준과 정치는 북부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그로 인해 2002년부터 코트디부아르는 내전에 돌입하였고 실질적으로 남부와 북부가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이부아리페의 정치는 단지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배제의 정치에 그치지 않았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소위 민족 정체성의 정치는 인구의 25%에 달하는 외국 출신 인구를 정치와 경제에서 배타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이들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종족성과 종교를 가진 코트디부아르 북부인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함으로써 민족 자체의 분열을 초래하였다.¹⁶ 베디에와 게이의 정권은 국가 기구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민족 정체성

16. 이런 의미에서 ‘디올라(Dioulas)’라는 개념의 사회적 정의를 둘러싼 변화는 중요하다 (Raynal, 2005: 111). “친정부 언론이 확산시킨 이미지에서 ‘디올라’라는 것은 반란의 인력창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코트디부아르 북부의 한 종족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북부에서 온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아버지와 코트디부아르 남부에 매우 많은 북부 출신 이민자는 그들이 코트디부아르 인이건 아니면 외국인이건 - 주로 부르키나 파소인이다 - 모두 디올라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을 자극함으로써 그 정치적 이익을 독점하려 시도했지만, 실제로는 민족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면서 오히려 종족적 정체성을 강화하였고, 정치적으로도 자신이 득을 얻기 보다는 배제하려고 했던 북부의 우아타라와 대립점에 있는 남부의 그바그보에게 이득이 돌아갔다.

IV. 정치위기의 역할

서론에서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적 위기를 설명하는 데는 구조적 요인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정치 위기의 역할에 기초하여 상황의 전개를 조명하는 것이 더욱 이해에 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장에서는 주요 행위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전략적 선택이 어떤 역할을 형성하면서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켜 왔는지를 고찰하도록 한다.¹⁷ 여기서는 국가 권력을 차지했거나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 지도자와 그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한다.

정치위기의 분석과 관련하여 이 글은 전반적으로 도브리의 정치위기의 사회학에서 제시한 개념과 동학을 중심으로 코트디부아르 위기에 접근한다. 도브리는 프랑스 정치 위기를 역사적으로 분석하면서 위기 국면을 복합적 체계의 가소성(可塑性, plasticité), 유동적 상황, 확대된 전술적 상호의존성 등으로 요약하였다. 도브리(Dobry, 1986)는 정치 위기를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의 동시 동원(mobilisation)의 역할로 규정하면서 이 상황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행위자의 전술적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이들 사이의 전술적 상호의존성이 강화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의 전개는 보다 유동적인 양상을 띠게 되며, 특히 사회를 구성하는 다영역(multisectoriel)의 동원은 복합적 정치 사회 체계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이 변화는 위기가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관찰을 가소성

17. 코트디부아르 주요 정치 지도자의 약력과 경험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것.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1.

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1993년 우푸에 부아니의 사망은 코트디부아르 정치에 있어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였다. 코트디부아르의 일상은 II에서 살펴보았듯이 우푸에 부아니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체제로 운영되었다. 우푸에 부아니는 형식적인 국가 원수일 뿐 아니라 코트디부아르를 식민 시기부터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단일 정당 PDCI와 전통적 부락정치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코코아와 커피 수출에 기반한 국가의 부를 분배하고 조정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코트디부아르의 국가와 사회는 상당 부분 우푸에 부아니라는 인물을 통해서 상징적, 물질적으로 매개되고 조정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사망은 일상적 정치 과정을 변화시키는 요소였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부아르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동시에 동원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치 위기가 발생했다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우푸에 부아니의 사망으로 발생한 정치적 공백으로 일시적으로 국회의장 베디에와 총리 우아타라의 경쟁이 벌어졌다. 베디에와 우아타라는 각각 중부와 북부 출신으로 지역적 종족적 배경은 달랐지만 국제공무원 출신의 고급 관료 엘리트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배경을 가졌다.¹⁸ 베디에는 신생 독립국 코트디부아르의 초대 미국 대사를 역임하였고, 1970년대에는 국제통화기금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1980년대부터 코트디부아르 국내정치에서 활동하였고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장을 역임하였다. 우푸에 부아니의 사망 당시 행정권을 책임지고 있던 총리 우아타라가 더 강력한 권력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코트디부아르의 헌법은 대통령 유고시 국회의장의 대통령직 수행을 규정하였다. 갑자기 닥친 상황이었지만 그 동안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던 형식적 헌법의 조항이 경쟁의 상황을 정리하는 규칙의 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베디에의 이부아리떼 정책은 위에서 분석하였듯이 경쟁자 우아타라를 배제시키기 위한 전술이었고 민족 정체성을 동원하여 기존 정권에 대해 충성심

18. 베디에는 코트디부아르 중부의 바울레(Baoulé) 종족에 속한다. 바울레는 코트디부아르 인구의 23% 정도를 차지하며 초대 대통령 우푸에 부아니도 바울레 출신이다.

과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부아리떼의 정책은 북부를 배제의 대상으로 응집시킴으로써 코트디부아르를 남북 대결 구도로 인도하였다. 1995년 대통령 선거에 우아타라와 그바그보의 보이콧, 그에 따른 1999년의 쿠데타, 2000년의 대통령 선거와 민중 봉기, 2002년 이후의 내전 등은 모두 정치적 영역의 선택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으로 확산되어 세력을 동원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달리 말해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트디부아르 정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포스트 우푸에 부아니 선거 경쟁의 틀 속에서 베디에가 택한 정책에 있다는 뜻이다. 베디에는 2010년 선거에도 PDCI의 후보로 출마하였고 25.1%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지만 우푸에 부아니가 형성한 과거 단일 정당의 조직적 기반이 얼마나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1999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게이는 전형적인 군인으로 우푸에 부아니와 마찬가지로 윌리엄 풍티 사범학교 출신이며 프랑스 생시르(Saint Cyr) 사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라이베리아와 근접한 코트디부아르 중서부 출신으로 야쿠바(Yacoubas) 종족에 속하며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다. 그는 쿠데타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쿠데타 당시 이미 퇴임한 뒤였다. 다만 2000년 선거에서 그바그보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려다 민중 봉기로 물러나게 되었고, 정치 활동을 지속하였지만 2002년 내전 발발 시기에 아비장에서 부인 및 지지세력 일부와 함께 살해당했다(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1c).

그바그보는 베테(Bété) 종족에 속하는 기독교도이며 남서부 출신으로 아비장에서 역사 교사를 담당했으며 대학에 진출하여 교수노조활동으로 정치에 참여하였다.¹⁹ 그바그보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보다는 개화된 남부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그의 정치적 성향이 종족 정치에 기반하여 형성되거나 이를 바탕으로 정치 활동을 벌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바그보의 정치 여정은 우푸에 부아니 독재에 저항하면서 형성되었다. 그는 1982년 학생운동

19. 우푸에 부아니의 탈식민 국가형성 과정에서 종족간 분배의 정치는 일부 영역을 특정 종족이 지배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 가운데 예를 들면 베테족은 군부를 아티에(Attie) 종족은 연구분야를 디올라(Dioulas) 종족은 교통분야 등을 지배하게 되었다(Galy, 2004: 134).

의 주요 리더로 활동했으며, 프랑스에 망명하여 저항을 지속하였다. 1990년 최초로 다원적 선거가 치러질 때 그바그보는 우푸에 부아니에 대항하는 후보로 야당의 대표주자로 부상하였다. 베디에가 이부아리떼 정책을 통해 우아타라를 배제하려고 하는 1990년대 중반에도 그바그보와 그의 FPI는 1995년 대통령 선거 보이콧에 동참할 정도로 민주적 원칙과 합리적 민족관을 보여주었다.

그바그보는 결과적으로 1999년의 쿠데타 이후에 2000년 선거에서 이부아리떼에 근거한 우아타라 배제의 커다란 수혜자가 되었다. 게이 장군은 베디에 정부 아래서 만들어진 선거법을 유지하여 우아타라의 배제를 지속하였고 자신이 대선 후보로 나서서 그바그보와 경쟁하였다. 그바그보는 우푸에 부아니 독재와 그를 이은 베디에, 게이 등의 친 서방 정권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 세력을 결집하였고 아버지 민중의 무력 동원과 지지를 통해 집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바그보는 집권을 하고 난 이후 권력에 집착하여 장기 집권을 하려는 행태를 보였고, 결국 2010년 선거 결과에는 자신이 불복하고 조작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그바그보는 야당 리더로서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비난하였지만, 집권하는 동안 서방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부정부패의 상징으로 부상하였다(Bernard, 2011). 그바그보는 반서방적 담론으로 지지 세력을 동원하고 현재도 코트디부아르 남부를 동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통적인 ‘배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²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그바그보가 처음에는 야당 지도자로 우푸에 부아니의 권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우푸에 부아니에서 베디에로 이어지는 바올레 종족의 지배적 권력과 투쟁하였지만, 결국은 자신이 집권한 다음에는 이부아리떼를 활용하여 북부를 배제시키려는 선택을 했다

20. 프랑스 대기업은 2000년대 그바그보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건설업의 Bouygues, 통신업의 Orange, 호텔업의 Accor, 석유업의 Total, 식품업의 Bolloré 등은 대표적인 코트디부아르 진출 기업이다.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은 800여 개에 달하며 이들은 코트디부아르 국가 예산의 40%를 담당할 정도로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바그보와 그의 부인은 모두 미국계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코트디부아르 남과 북의 대립을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간의 투쟁으로 정의하면서 기독교/회교의 대립을 초래하고 강화하였다. 그바그보 하에서 종족적 개념에 기초한 민족 정체성이었던 이부아리페는 이에 더해서 지역주의적, 종교적 색채가 가미되었다(Raynal, 2005: 113). 그바그보는 2002년 내전이 발발한 뒤 “전능한 하느님은 코트디부아르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²¹ 그바그보의 복음주의적 선악전에서 우아타라는 프랑스 및 서방의 대리인이라는 악역을 부여받게 되었다.

우아타라는 중부의 아무수크로 부근에서 출생했지만 그의 부계는 코트디부아르 북부 출신이다. 많은 아프리카 국경과 마찬가지로 코트디부아르의 북부 국경은 부르키나 파소 및 말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식민 행정 구분에 의해 국경으로 발전하였다. 우아타라 부계 종족은 18세기 콩(Kong) 제국 왕족의 후손으로 말리, 부르키나 파소, 가나, 코트디부아르에 걸쳐서 생활공간을 유지해 왔다. 베디에 정권의 이부아리페 정책은 이를 노려 우아타라를 외국인으로 규정하여 선거 경쟁에서 제외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민족 정체성에 기초한 배제 정책이 우아타라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북부 전체의 집단적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이다. 북부 지역의 이민 집단이 코트디부아르의 최대 도시 아비장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왜곡된 이부아리페 정책의 분열적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Galy, 2003: 46).

우아타라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유학하여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국제통화기금에서 근무한 국제 관료 출신이다. 그는 1980년대 서부 아프리카 국가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다가 코트디부아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총리로 임명되어 우푸에 부아니의 딸기 행정을 담당하였다. 사실 그의 총리 재임시 우푸에 부아니가 사망하지만 않았어도 우아타라는 정치에 적극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게다가 베디에 정권이 이부아리페 정책이라는 전술로 북부의 결집을 초래하지 않았어도 우아타라의 정치 세력은

21. 기독교 신학자 은게티아(Robert N'Guettia)는 그바그보를 신이 코트디부아르에 내려준 지도자라면서 이스라엘의 모세와 비교하였다(Raynal, 2005: 115).

그다지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아타라는 그바그보와 같은 투쟁적 정치 리더의 이미지보다는 세련된 국제관료의 이미지에 더 적합하다. 정치에서도 그는 투쟁적 입장으로 임하기보다는 온건한 입장을 보여왔다. 예를 들어 2002년 그를 지지하기 위한 민중 봉기가 일어나 북부 세력이 국토의 절반을 차지한 상황에서도 그는 현장을 버리고 프랑스로 망명을 떠났다. 그가 2006년 귀국한 것은 새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우아타라는 국제통화기금 관료 출신이자 세련된 이미지로 서방과 절친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Gurrey, 2011). 산업과 농업, 노동운동과 반서방 세력이 강한 남부에서 우아타라보다는 그바그보를 선호하는 이유이다.

2011년 3월 현재 코트디부아르는 국제적으로 선거의 승자로 인정받은 우아타라 정부와 기존의 그바그보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영토는 여전히 그바그보가 통치하는 남부와 친 우아타라 반정부군이 통치하는 북부로 반분되어 있다. 수도 아비장에서는 그바그보 정부가 주요 시설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우아타라는 유엔군의 보호 아래 호텔에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 시도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다시 내전과 통합의 기로에 서서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불확실한 상황의 확대된 전술적 상호 의존성, 그로 인한 유동적 국면, 그리고 양측의 무력 충돌이 반복될수록 강화되는 적대성은 이 과거 화려한 성장과 안정을 자랑했던 국가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이게 한다.

V. 코트디부아르 사례의 대표성과 특수성

코트디부아르는 장기적인 정치 위기의 늪에 빠져 있다. 2002년의 민중 봉기에 이어 국토가 분할되어 내전 상황에 놓여 있으며, 1995년과 2000년의 선거는 모두 정상적인 조건에서 치러졌다고 보기 어렵다. 1999년에는 군부 쿠데타가 정권의 종말을 가져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코트디부아르가 지난 10여 년 동안 경험한 정치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역할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기존의 탈역사적 부족주의나 일반적 국가실패론, 정치경제적 설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치 세력이 구조적 원인을 정치 자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특히 30여 년의 안정적 독재에서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민족 정체성 조작의 정치를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규명하였다. 그 다음에는 주요 정치 지도자의 선택이 위기의 발생과 전개에서 수행한 역할을 조망하였다. 일상에서도 행위자의 역할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지만 위기의 역학에서 행위자의 선택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우푸에 부아니의 대통령직을 승계한 베디에의 이부아리페 정책은 정적 우아타라를 경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나라의 정치 위기가 남북의 대결 구도로 발전한 가장 커다란 원인은 그 선택에 있는 셈이다. 그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2011년, 대선 1차 투표에서 25.1%를 득표한 베디에는 결선투표에서 우아타라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또 다른 선택을 하였다. 1차 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그바그보를 견제하여 결선투표에서 우아타라가 승리하도록 기여한 것이다. 베디에의 선택이 그바그보로 하여금 선거결과를 부정하게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우아타라의 승리를 가져온 것만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코트디부아르 정치 위기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논문이 아닌 저서 분량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의 역할은 구조적 설명에 치우친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위기의 역학을 위기의 정치사회학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만족해야 할 것이다.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코트디부아르 정치 위기는 아프리카 정치에서 나타나는 위기의 대표적 성격과 특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우선 아프리카 대다수의 국가는 유럽 강대국의 식민기를 거쳐 탈식민 국가와 민족 형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많은 학자는 아프리카 포스트 식민 국가의 취약성을 이야기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식민 시기로부터 물려받은 국가 또는 국경 등 유산의 강력한 지속성에 주목하였다. 코트디부아르 역시 이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코트디부아르의 정치 위기는 아프리카 특유의 정치와 갈등 구조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아직 취약한 민족 국가적 기반을 나타내고 있지만 동시에 내전의 장기 지속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부아르라는 국가적 정체성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코트디부아르 정치 위기는 두 개의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민족주의의 대립이 아니라 잘못된 민족 정체성의 조작이 가져온 정치적 투쟁의 극단화의 결과라는 뜻이다.

둘째 코트디부아르의 사례는 서부 아프리카의 다종교, 다종족 사회에서 만 들어지는 남북 대립 및 균열 구조의 형성을 대표한다(Galy, 2003: 43). 코트디부아르의 북부는 서부 아프리카의 내륙지역임과 동시에 바로 사하라 사막 남쪽의 사헬지역이다. 그곳은 오래 전부터 북아프리카와 교류가 빈번한 지역이며 종교적으로 이슬람이 지배하는 지역이다. 반대로 서부 아프리카의 연안 및 남부는 열대성 기후이자 정글지역이 많고 전통적으로 서구 세력과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며 근대의 문물과 생활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침투한 지역이다. 종교적으로 이 지역은 가톨릭 또는 프로테스탄트교도가 다수이다. 코트디부아르 사례가 보여주는 대표성은 이들 남과 북의 구조적 대립과 그 필연성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 요인의 정치적 동원이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라는 점이다. 같은 국가에서 우후에 부아니 시기의 통합적 정치 패턴과 그의 사망 이후 분열적 패턴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실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코트디부아르는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독립 국부’의 후계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국가 상징성의 의미를 가지고 단일 정당을 지배하면서 국가 기구를 주도해 왔던 정치 지도자의 사망은 정치적 불안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특히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지도자 사망의 시기와 단일 정당에서 다당제로의 이행기가 중복됨으로써 정치 게임의 실질적 규칙과 명목적 규칙이 동시에 변화하는 유동적 국면을 초래한 셈이다. 같은 프랑스어권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의 쉥고르처럼 후계자를 지목하고 하야한 경우와 대비하여 비교하면 유익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 코트디부아르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로 축약할 수 있다. 우선 코트디부아르는 다른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장기간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경제가 정치 위기를 면제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위기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1990년대 이후는 코트디부아르 역시 경제사정이 좋지는 못했

지만 그래도 주변국보다는 훨씬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웃의 가나는 코트디부아르보다 낮은 경제 수준이지만 여전히 안정된 정치 체제를 유지한다. 경제와 정치를 직접 연결하여 설명하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한 목적이지만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오히려 경제발전이 가져온 국내 및 외국으로부터의 이민은 정치위기의 자양분으로 작동한 것은 사실이다.

다음은 코트디부아르인이 자랑하는 정치적 의식의 성숙성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코트디부아르의 시민은 내전과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²² 달리 말해서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기의 역학은 자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와 정치의 상호관계가 단선적이지 않듯이 시민의 의식과 정치의 관계 역시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코트디부아르의 지정학적 요소 또한 특수한 작용을 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의 위기가 악화된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서부 아프리카 상황은 마약 관련 거래, 다이아몬드와 무기의 밀수, 돈 세탁 등의 현상으로 종족적 대립이 확산될 수 있는 매우 불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Hugon, 2003: 119). 또한 거시 역사적으로 코트디부아르는 시에라레온과 가나라는 영국령 식민지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프랑스령 서부 아프리카에서 경계가 열려 있는 북부의 부르키나 파소와의 민족 정체성을 중심으로 분쟁적 잠재력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결국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부아리떼 정책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의 강한 규정과 약한 정의가 적당히 혼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22. 예를 들어 아비장의 시민은 군부 정권의 가능성을 거부하며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다(Roubaud, 2003: 71). 2002년 아비장에서 실시한 루보의 앙케트에 의하면 경제 사회적 변수가 시민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반면 종교와 종족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은 압도적이다. 특히 종족 변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 조홍식. 2005. 「민족의 개념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pp. 129-145.
- 한양환. 1999. 「아프리카의 종족분규: 후투-투치족 간 갈등의 역사적 배경과 그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pp. 395-415.
- 한양환. 2007. 「아프리카의 민주화와 종족분규: 코트디부아르의 남북분단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25집. pp. 203-231.
- Amin, Samir. 1967. *Le développement du capitalisme en Côte d'Ivoire*. Paris: Editions de Minuit.
-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Badie, Bertrand. 2003. *L'Etat importé: L'occidentalisation de l'ordre politique*. Paris: Fayard.
- Bates, Robert H. 1983. "Modernization, Ethnic Competition and the Rationality of Politics in Contemporary Africa." In D. Rothchild and V.A. Olorunsola. eds. *State versus Ethnic Claims: African Policy Dilemmas*. Boulder: Westview Press. pp. 152-171.
- Bates, Robert H. 2008. *When Things Fell Apart: State Failure in Late-Century Af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yart, Jean-François. 1989. *L'Etat en Afrique: La politique du ventre*. Paris: Fayard.
- Bernard, Philippe. 2011. "Gbagbo: retour sur investissement." *Le Monde* le 16 février.
- Birnbaum, Pierre et Bertrand Badie. 1979. *Sociologie de l'Etat*. Paris: Grasset.
- Bouquet, C. 2005. *Géopolitique de la Côte d'Ivoire*. Paris: Armand Colin.
- Chauvau, J.-P. et J.-P. Dozon. 1987. "Au coeur des ethnies ivoiriennes ... l'Etat." In E. Terray. dir. *L'Etat contemporain en Afrique*. Paris: L'Harmattan. pp. 221-296.
- Cogneau, Denis, Sandrine Mesplé-Somps et François Roubaud. 2003. "Côte d'Ivoire: histoires de la crise." *Afrique contemporaine* Été. pp. 5-12.
- Di John, Jonathan. 2009. "The Concept, Causes and Consequences of Failed States: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genda for Research with Specific Reference to Sub-Saharan Africa."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22(1). pp. 10-30.
- Dobry, Michel. 1986. *Sociologie des crises politiques: La dynamique des mobilisations multisectorielles*. Paris: Presses de la FNSP.
- Galy, Michel. 2003. "Les espaces de la guerre en Afrique de l'Ouest." *Hérodote* 111. pp. 41-56.

- Galy, Michel. 2004. "Côte d'Ivoire: la violence juste avant la guerre." *Afrique contemporaine* Printemps. pp. 117-139.
- Gurrey, Béatrice. 2011. "Sept semaines de solitude." *Le Monde* le 19 janvier.
- Herbst, Jeffrey. 2000. *States and Power in Africa: Comparative Lessons in Authority and Contro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ugon, Philippe. 2003. "La Côte d'Ivoire: plusieurs lectures pour une crise annoncée." *Afrique contemporaine* Été. pp. 105-127.
- Jolivet, Elen. 2003. *L'ivoirité. De la conceptualisation à la manipulation de l'identité ivoirienne*. Mémoire de Sciences Po Rennes.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1a. "Côte d'Ivoire: une succession manquée, l'élection présidentielle de 2010." février: <http://www.ladocumentationfrancaise.fr/dossiers/cote-divoire/election-presidentielle-2010.shtml>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1b. "Côte d'Ivoire: une succession manquée, biographies." février: <http://www.ladocumentationfrancaise.fr/dossiers/cote-divoire/biographies.shtml>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1c. "Côte d'Ivoire: une succession manquée, chronologie." février: <http://www.ladocumentationfrancaise.fr/dossiers/cote-divoire/chronologie.shtml>
- Lemke, Douglas. 2003. "African Lesso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Research." *World Politics* 56(1) October. pp. 114-138.
- Le Pape, Marc. 2003. "Les politiques d'affrontement en Côte d'Ivoire 1999-2003." *Afrique contemporaine* Été. pp. 29-39.
- M'Bokolo, Elikia. 1985. *L'Afrique au XXe siècle: Le continent convoité*. Paris: Seuil.
- Richard, Joseph. 1997. "Democratization in Africa after 1989: Comparative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Comparative Politics* 29(3). pp. 363-382.
- Rémy, Jean-Philippe. 2011a. "M. Ouattara à la tête d'une Côte d'Ivoire déchirée." *Le Monde* le 13 avril.
- Rémy, Jean-Philippe. 2011b. "Soudain Gbagbo est là." *Le Monde* le 13 avril.
- Rotberg, Robert I. 2003. *When States Fail: Causes and Consequen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ubaud, François. 2003. "La crise vue d'en bas à Abidjan: ethnicité, gouvernance et démocratie." *Afrique contemporaine* Été. pp. 57-86.
- Smith, Anthony D. 1986.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asic Blackwell.
- Thies, Cameron G. 2009. "National Design and State Building in Sub-Saharan Africa." *World Politics* 61(4) October. pp. 623-669.
- Touré, Moriba. 1999. "Immigration en Côte d'Ivoire: La notion de "seuil de tolérance" relève de la xénophobie." *Le Jour* jeudi 20 mai.
- Vail, Leroy. ed. 1989. *The Creation of Tribalism in Southern Africa*. London: James Currey.
- Verschave, François-Xavier. 1999. *La Françafrique: Le plus long scandale de la*

République. Paris: Stock.

Zacher, Mark W. 2001. "The Territorial Integrity Norm: International Boundaries and the Use of For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5(2). pp. 215-250.

The Politics of State, Nation and Ethnicity: The Ivorian Case of Political Crisis

Cho, Hong Sik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oongsil University

Ivory Coast is deeply mired in political turmoil. Both the 1995 and 2000 presidential elections have been criticized for implementing unfair rules and their results have been contested by major political actors. The popular uprising and the 1999 military coup have added instability to the regime and since 2002, the country has been at civil war.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political crisis of last decade and to analyze its dynamics. Our approach stems from a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contending structural theories that explain Africa's political instability, which are ahistorical tribalism, general state failure, or political economic changes. These existing theories cannot sufficiently explain particular crisis such as that is currently taking place in Ivory Coast. We have instead focused on the process of resources mobilization by political forces and leaders. In this, we consider the structural elements as the main potential political resources. According to our findings, it appears that the politics of manipula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in the transition from a three decade-long stable authoritarian rule to the pluralistic political system were a crucial factor that led to the crisis. This research also emphasizes the choices that the political leaders make in the beginning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risis. The undeniable role played by the actors even in 'routine' circumstances becomes much more important in the more fluid conjuncture of a political crisis. To conduct a more detailed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vorian case from this strategic perspective, a full-fledged book would be more appropriate. Nevertheless, the modest ambition of this article is to underline the limits of structural analysis and to shed light on the need for a political sociology-based approach, specifically adapted for crisis dynamics.

Key Words: Africa, Ivory Coast, State, Nation, Ethnicity, Identity, Political Crisis

조홍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서울 동작구 상도동 511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Tel_02 820 0527
Email_chs@ssu.ac.kr